

부마민주항쟁

물 꺼!





###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저항하며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지역 마산에서는 10월 18일 항쟁이 일어난다.

본 교재는 부마민주항쟁의 마산지역 항쟁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 집필방향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통칭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마사태’로 불리던 이 사건은 1999년 ‘부마항쟁’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2019년에는 ‘부마민주항쟁’이라는 명칭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40여 년에 걸쳐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달라져 왔으며, 지금도 다른 민주화 운동에 비해 역사적 평가 및 연구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부산 지역의 항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마산 지역의 항쟁과 관련된 교육 자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고장에서 발생한 민주항쟁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가지기 힘들고,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시대의 끝자락 정도에 위치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간략하게 다루어집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발전상에서 제 위치를 찾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며, 교과서 지면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 **우리 지역(창원)** 2010년 7월 1일 이후의 통합창원시를 지칭한다. 기존의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진 통합 창원시에는 구마산이 포함된다. 본 교재의 ‘마산’이라는 행정구역명은 사라졌지만, 역사적 사건의 고유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했음을 밝힌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이 유신시대에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노력이며, 이후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일정한 역할을 한 민주항쟁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역사 및 지역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학습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을 단일 주제로 삼아 수업을 설계하기에는 수업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교재는 부마민주항쟁을 주제로 중·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한 민주주의 교육자료임을 밝힙니다. 집필 시간 및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기획 의도만큼의 완성도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교육자료의 형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 중에서도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다룬 지역사 교재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과 마산이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었던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만의 지역적 특수성(지명, 기관, 인물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리 지역의 증언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부마민주항쟁의 장면을 그려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둘째, 본 교재는 부마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자체를 알리고 그 정신을 내면화하여 민주시민으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을 전후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을 최소화하여, 부마민주항쟁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별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역사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의 선택과 집중에 고심하였습니다. 다만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내용을 습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생각해보고 그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셋째,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시대의 종말과 그 이후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현재까지도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의를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접하는 학생들의 생소한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존의 교과서 서술 방식과 같이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표식 정리나 요약정리식의 서술을 지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독자들의 자유로운 생각 속에서 나름의 역사적 의의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넷째, 중·고등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은 ‘잡지’ 형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도서관 서고에 꽂혀 꿈적도 하지 않는 교재, 표지와

첫 장에서부터 교과서와 같은 딱딱함을 주는 교재, 추상적인 방식으로 생각과 토론만을 유도하는 활동으로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재가 되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다음의 형태로 부마민주항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 1부 : 카툰 형식으로 부마민주항쟁 당시의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 2부 : 교실대화, 가상인터뷰, 수필, 신문기사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았으며,
- 3부 : 부마민주항쟁의 가치를 살린 의미 있는 활동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본 교재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에서 더욱 완성도 높은 교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부마민주항쟁을 교육할 마땅한 자료가 없는 현실 속에서, 본 교재가 부마민주항쟁에 관심을 갖고 그 정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필진 일동



# CONTENTS



# 1부

## 카툰으로 보는 부마민주항쟁

Cartoon 불 꺼!..... 08

# 2부

## 부마민주항쟁 이야기

기억 속으로 부마민주항쟁과 마산..... 70

생각 속으로 Real Talk 부마이야기..... 84

생활 속으로 창동을 못 가는 할머니..... 98

실천 속으로 교복 입은 민주 시민..... 120

# 3부

## Action! 부마민주항쟁

Action 01 부마민주항쟁 별자리 그리기..... 134

Action 02 부마민주항쟁 마음에 새기기..... 136

Action 03 부마민주항쟁 키워드 찾기..... 145

Challenge 부마민주항쟁..... 146



1부

# 카툰으로 보는 부마민주항쟁

불 꺼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대의 외침.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일차적 목적과,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한 계층에 대한  
저항이 담긴 구호.



cartoon

# 불꺼!

“ 아인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

40년 만에 풀어놓는 아프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 기획의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른 민주항쟁에 비해 홀대받고 자리매김하지 못한 부마민주항쟁.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

###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들려주고 싶다.

부마민주항쟁은 그 이후 전개된 우리나라의 정치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없었고, '5·18'과 '6월 항쟁'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다. 최근에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다.

### 부마민주항쟁의 이야기는 곧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그 이전의 민주항쟁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유신시대의 저항은 일부 야당인사와 지식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가 있는 행동으로 민중의 저항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은 학생들이 시작단계에서 불을 지핀 부분은 있었지만, 항쟁을 주도한 주체는 분명 일반 시민들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부마민주항쟁은 바로 우리 동네의 이야기이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아직도 그 날의 항쟁에 참가했던 당시 학생, 노동자, 상인들은 우리와 함께 현재를 살고 있다.

###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 40년이 지나서 당시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 당시 항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다양한 인물의 입장을 각색해보고자 한다. 그 날의 외침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부마민주항쟁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거창한 일보다 어쩌면 더욱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았고 지금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작은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줄거리

1970년대 말 유신의 억압 속에 다양한 저항 사례들이 표출된다. YH무역사건, 야당 총재의 제명 사건 등의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오일쇼크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이 겹치면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무엇보다 인권 탄압이 자행되던 일상생활 속 압박은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다.

당시 경남대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은 대학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정부의 부당함과 인권 탄압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왜곡보도를 하는 언론, 정부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시위를 계획하게 된다. 1979년 10월 22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비밀리에 동조자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부산에서 10월 16일 대학생들이 유신에 저항하는 시위를 먼저 일으키게 되고, 10월 18일 마산에서도 경남대학교 휴교령과 함께 긴장이 고조된다.

## 등장인물



### 조인권 | 학생 (22세 남)

경남대학교 재학생

경북 포항 출생으로 복학 이후 유신정권의 억압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독서회와 각종 씨클을 중심으로 토론활동 및 시국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경남대학교 학생들을 각성 시킬 수 있는 거사를 계획하게 된다. 계획 실현을 목전에 두었지만, 부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는 상황을 맞이한다. 그 동안 의 방향과 고민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위험부담을 안고 학생들 앞에 서게 되는데...



### 정기성 | 학생 (22세 남)

경남대학교 재학생

마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남대학교 재학 중, 평소 모범적인 생활 패턴으로 안정적이고 차분한 성격을 지닌 학생. 마산 출신의 서울 소재 대학생 선배들의 영향으로 시국에 대한 문제점에 눈을 뜨고, 마산 항쟁을 주도적으로 모의하게 된다. 학생들만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을 고려한 항쟁을 준비하고자 노력한다.


**최순애** | 학생(23세 여)

경남대학교 재학생

집안에서 언니들의 배려로 대학을 다니게 된 것에 대해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선택받았다는 고마움과 부담감으로 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일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도 정치적인 억압의 영향과 간섭이 계속되는 상황에 저항하여 옹은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옥수민** | 학생(23세 여)

경남대학교 재학생

최순애의 친구로 독서회 등을 통해 마산에서의 항쟁을 준비하게 된다. 소탈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성격이지만, 항쟁의 준비 과정에서는 매우 진지한 태도를 견지한다. 실천력이 강하고 실제 항쟁 과정에서도 초기 시위를 주도한다.


**박영수** | 공원(20세 남)

당시 마산수출자유지역 공단 노동자

회사 내의 병영적 분위기와 임금 차별, 경직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10월 18일 퇴근 길에 학생들의 시위에 고무되어 우발적으로 시위에 참가하게 된다. 시위의 선두에서 주도적으로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 시위 중에도 공격 대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다.



**조미자** | 주부(43세 여)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림시장 근처에 거주했던 주부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출근을 한 상황에서 우연히 10월 18일 시위 도중에 추격당하던 학생을 숨겨준다. 유신시대 마산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정기성과 대화 중에 자신의 생각을 은연중에 표현하게 된다.



**현태민** | 전투경찰(21세 남)

대학교 휴학과 함께 군 복무를 전투경찰로 배치 받게 된다. 자신의 부대가 항쟁의 시위를 진압하게 되면서 학생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전투경찰 측의 분위기와 입장을 대변한다. 시위 현장의 긴박함과 일부 폭력성이 현태민의 모습에서 엿보인다.



**남길용** | 기자(40세 남)

경남매일(현 경남신문) 취재부 부장  
기자로서의 소신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뚜렷한 생각을 가진 인물로 부마민주항쟁 당시 현장에서 후배 기자들을 독려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위해 취재를 주도한다. 10월 19일 마산 시민들이 언론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며, 신문사를 공격할 때 위기를 맞게 된다.



# 헌법 공포식



김대중선생석방하라  
김지하시인석방하라

긴급조치해제하라  
구속학생석방하라





경남대학교 강의실



방송부에서 도와주기로 했고, 신부님도  
등사기 빌려주시기로 약속하셨어.



그럼  
22일로  
하는  
기가?



근데...  
우리  
괜찮...  
겠지?



만약에라도 잡히면 학교에  
대한 불만만 말하자.  
정치적인 얘기는 속 빼고...  
그러면 지들이 어떡할 건데?





큰일났다...애들은 도대체 어디 있지?...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지금 시작하면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  
가족들 모두 골장일 수 있다.



그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학우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1시간  
이상을 멍하게  
앉아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경남대의  
모습입니까?  
우리 경남대만  
과거 유신을  
지지했다는  
치욕적인  
이유로



전국대학생  
연합회에  
가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구장이나 가고  
술판만 벌이고  
화장하고  
미팅이나  
하는 것이  
대학생입니까?

지금  
부산에서는  
학생들이 이를  
동안 피를 흘리며  
유신독재에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의 나무는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도  
과감하게 나가  
싸웁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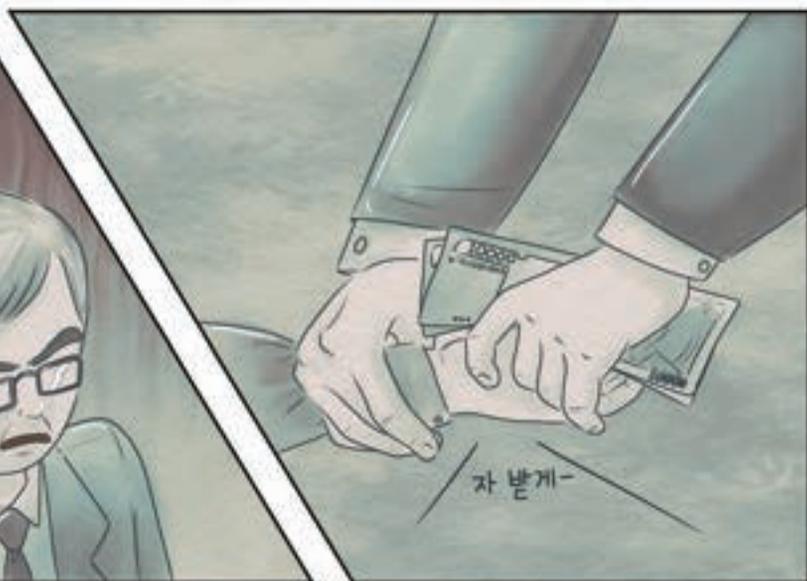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독재타도

유신철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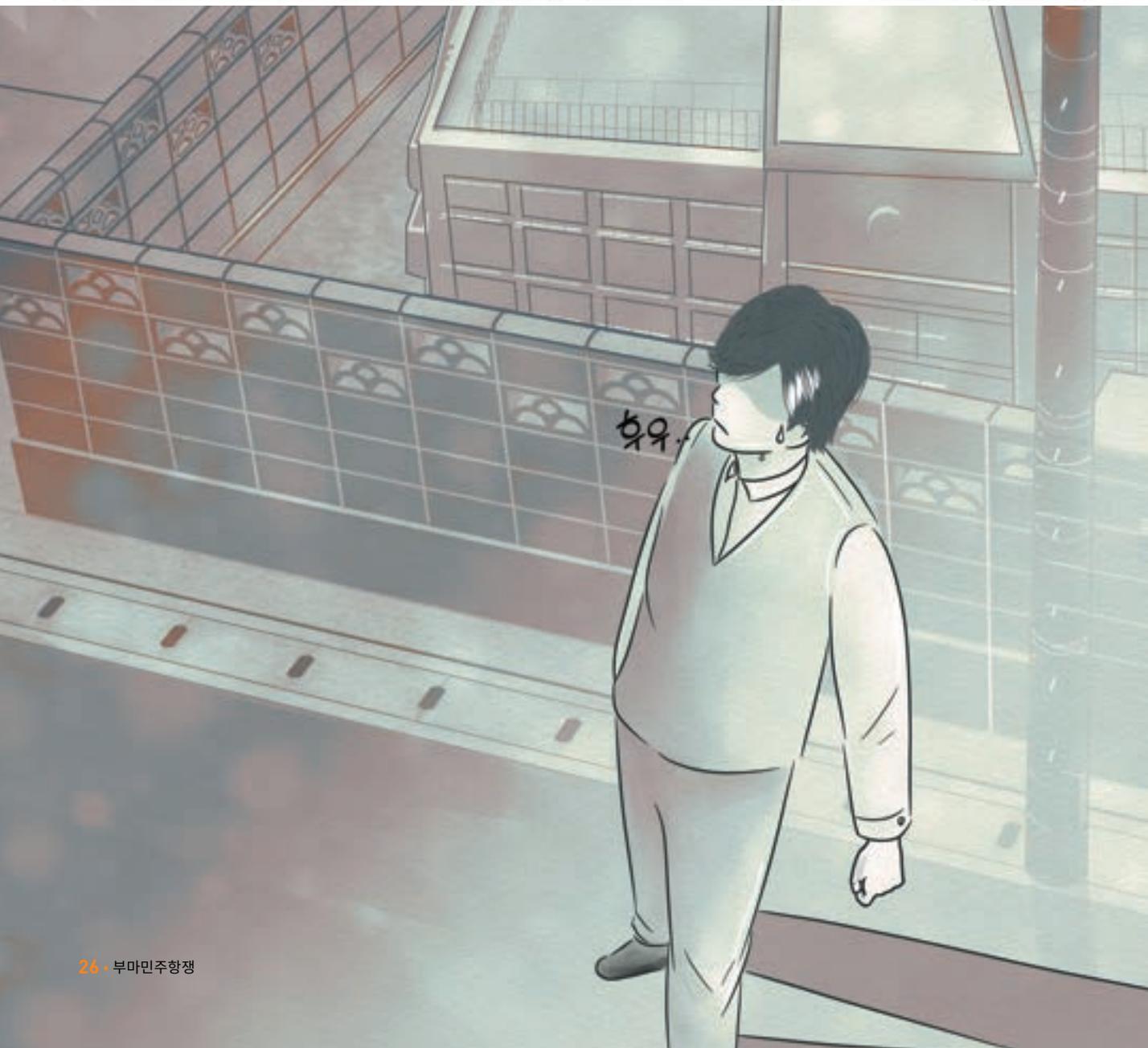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네.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잡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 말을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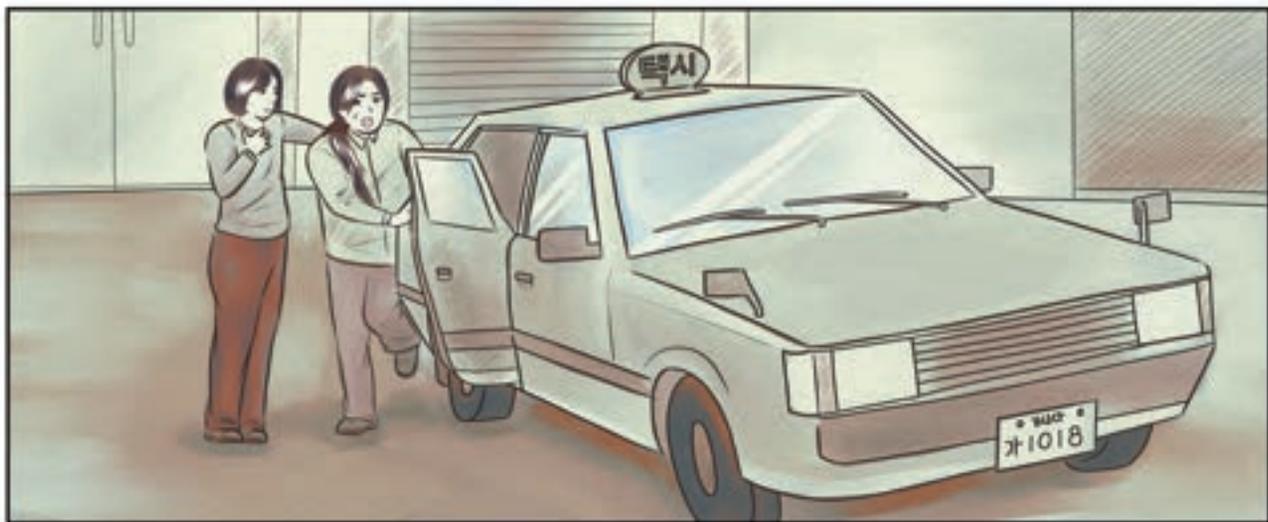




불종거리











수민아,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너무 싫다.

그래.  
순애 니 말이 맞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배웠는데,  
더 이상 모르는 척하고 살지 말자.



프럭 프럭



와~ 아~ 아~



유신철폐!!

독재타도!!

학우 여러분!  
5시까지  
3·15탑으로!!

6시에는  
자유수출정문으로!!

몽고간장·무학초등학교





몽고간장  
무학초등학교 방면















3.15 의거탑







경북 포항 조인권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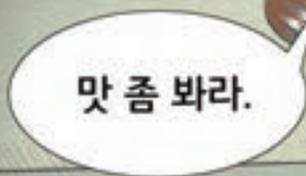




# 마산 경찰서 보호실



마산 경찰서 취조실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으악...



제.. 제발...



북한의  
지령이  
뭐야!!!

돈은 얼마나  
받았지?  
언제부터  
간첩질을 했나?  
모의한 자들을  
다 붙여!!





시위는 학생에서 시민 전체로 확산되고...



마산수출자유지역 퇴근 시간









10월 18일 밤



1부 \_ 카탈로니아는 부패 권력에

\*불꺼 :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대의 한 외침. 자신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일차적 목적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건물과 승용차 불빛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담겨있음. 무시무시한 권력에 맞서 어둠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했던 상징적인 구호.











뭐해  
새끼들아!!  
밀리잖아!!  
시위대 앞에  
있는 새끼들  
끌어내서  
뒤로 넘겨!  
빨리!!



웃기고 있네.  
지는 뭐하고...  
지금 이 판국에  
끌어내다가 내가  
잡혀가겠구만.



어리워!

아...파요...



경찰들이  
사람들  
잡아갑니다.  
조심하이소.



여러분 옆에 사람 안 끌러가게  
잘 붙들어 놓고요.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맨 손으로 싸울 수  
없어야입니까.

맞소. 돌이든  
병이든 뭐든 집어  
들어야지...

저러다가 사람 죽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나중에  
누가 책임 질려고...

태민아 정신차리라. 저봐라 유리병하고  
돌멩이 날라온다. 대학생들만 있는기 아니고  
이제는 마산 시민 전체랑 싸우는 판이다. 마음  
약하게 먹으면 우리가 당할 판이데이.



10월 19일 산호 파출소

여러분  
방송국으로  
갑시다. 뉴스에는  
보도하지 않고,  
정부 입장만  
발표하는 방송국  
부숴버립시다.

신문사도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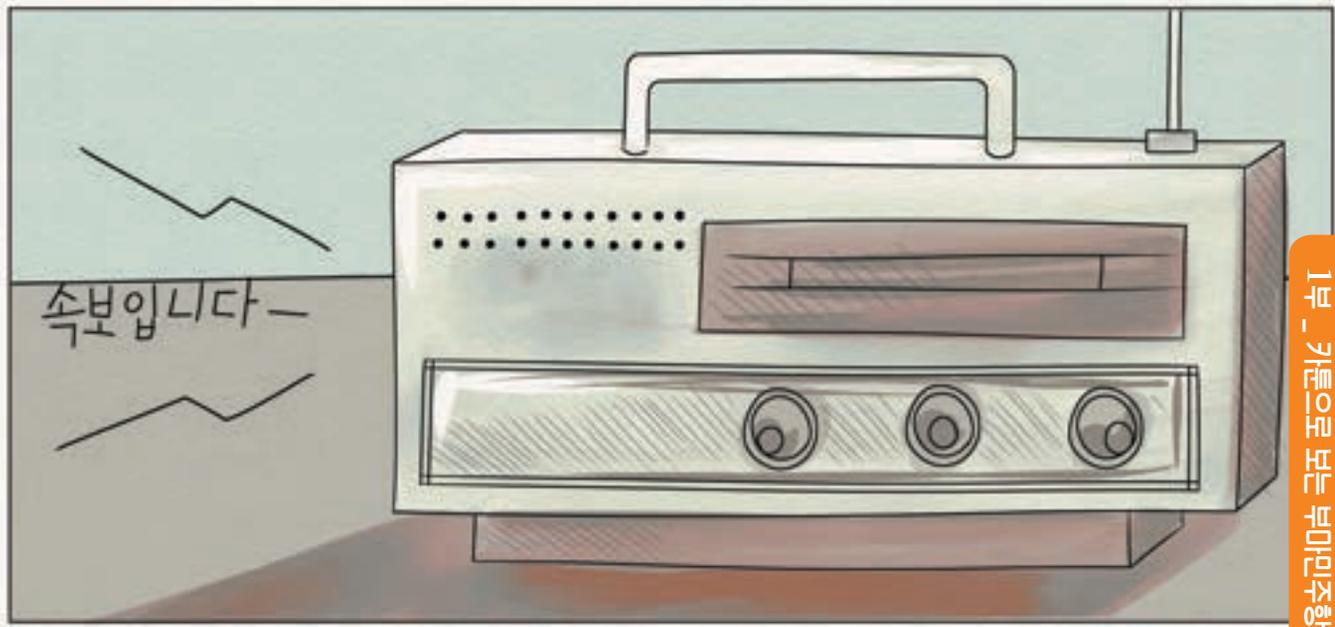
경남매일(현 경남신문)



우리 상황을  
기사 한 줄  
못쓰는 언론이  
더 나쁩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가 사제  
총기를  
만들었다는  
경찰서장 말만  
보도했더만요.







박정희가 죽었다고...!

수민아... 괜찮아...?

파로...



## 2부

# 부마민주항쟁 이야기

부마민주항쟁  
따라가기





기억속으로

.

# 부마민주항쟁과 마산





## 수업시간 교사와 학생이 카툰 장면을 보고 있다.

“카툰 잘 봤나요? 감상평을 말해봅시다.”

“재밌어요, 박진감 넘치고 사실적이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만 같아요!”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지금 보신 카툰은 실제로 1979년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을 소재로 삼은 거랍니다.”

“진짜요? 마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선생님, 궁금한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렇까요?  
그럼 지금부터 1979년의  
마산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유신 헌법 공포식



박정희 9대 대통령 당선



장발 단속



YH무역사건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 화면에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다.

“당시 마산과 관련 있는 정치적 사건들이에요.  
어떠한 내용인지 말해볼까요?”

“유신 헌법의 제정, 박정희 대통령이 5번째로  
대통령이 된 기사, 단속당하는 시민들, YH무역 사건,  
국회의원에서 제명된 김영삼 의원...”

“박정희 대통령은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하고자  
헌법을 바꾸고, 저항하는 국민들을 폭력으로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끊임없이 독재에  
저항했고, 여기에 정부는 국민들을 구속하고  
고문하는 등 인권을 탄압하면서까지 권력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맞습니다. 당시의 정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던 김영삼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정부에 더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죠.”



### 유신 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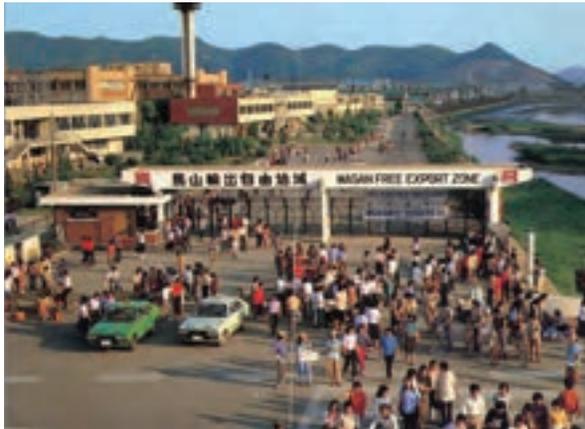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 분단의  
현실과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 아  
래,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제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 YH무역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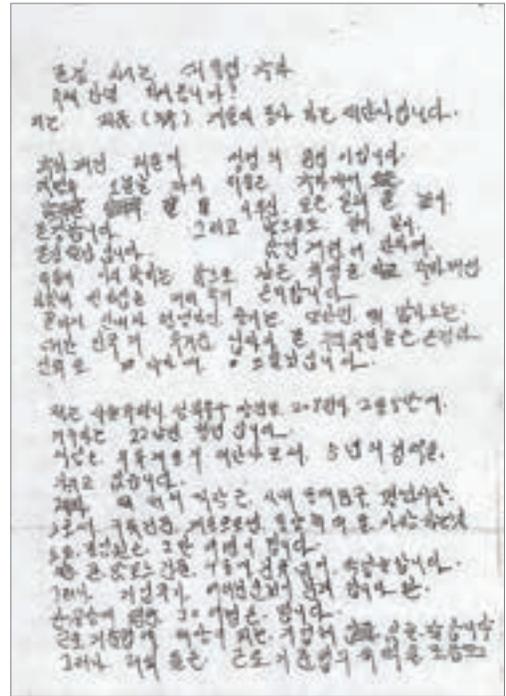
가발수출업체인 YH무역의 여  
성 근로자들이 회사폐업조치에  
항의하여 야당인 신민당 당사  
에서 농성시위를 벌인 사건입  
니다.

### 김영삼

부산과 경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자, 당시 야  
당 대표였습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태일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  
 (전태일재단)

##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1970년 10월 7일... 16시간 노동... 2백여 명... 거의 직업병... 노동청 뒤늦게 활발키로

### 소녀등 2백여 명 흑사

거의 직업병... 노동청 뒤늦게 활발키로

노동조건영점 : 평화시장 피복공장

노동자의 삶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경향신문 1970년 10월 7일 자)



## 왜 마산일까?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로 부마민주항쟁이  
마산에서 일어난 건가요?”

“역사적 사건을 볼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방금 본 내용은 정치적 상황만을 다룬 것이구요,  
당시 마산의 경제적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진 속의 수출자유지역을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런 모습이었네요.”

“마산은 1970년대 수출자유지역으로 선정된 후  
남해고속도로의 개통과 발맞추어 기계공업과 섬유산업의 주요기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국내에도 경제불황이 발생했고,  
설상가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큰 곤란에 처했답니다.  
정부에서 그토록 강조한 경제성장만으로는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된 것이지요.  
특히 산업의 활성화로 많은 노동자가 유입된  
마산에서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심각했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시 정부에 불만이 많았겠네요.”



### 수출자유지역

국가가 수출자유지역을 지정해  
주어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물  
품은 수출한다는 조건 아래 여  
러 가지 혜택을 주는 지역을 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듣다 보니 드는 생각인데요,  
당시 마산만 특별히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왜 마산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거죠?”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제 마산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다루고자 합니다.

마산은 바다와 가까운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일찍이 조창이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과 물건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수많은 귀향민이 왔으며,

6·25전쟁 중에는 피난민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자리 잡은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동자들이 들어온 꿈의 도시이기도 했지요.

결국 마산은 오랜 시간 각자의 사정을 가진 이주민들이

유입되어 만들어진 도시인 것이지요.”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부산에 사시다가  
20대에 직장을 얻기 위해 마산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귀향민

고향으로 되돌아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곳 마산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마산 사람들은 정부의 부당한 태도를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3·15의거는 대표적인 마산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저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한 역사적 경험은 부마민주항쟁의 또 다른 배경이 될 수 있었겠죠.”

“결국 마산 사람들은 삶의 터전인 마산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고자 한 것이었네요. 앞에서 본 카툰의 ‘불 꺼’는 우리 시민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한 외침이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마산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지금까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실에서 살펴본 부마민주항쟁은 어땠나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고장이 괜히 자랑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하지만 사진과 말로만 설명을 듣다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어  
부마민주항쟁 관련 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 해볼까요?”

“정말요? 그럼 더욱 부마민주항쟁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얼른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 답사로 찾아가는 "부마민주항쟁"



## 자료출처

### 마산 야경

<https://kto.visitkorea.or.kr/kor/notice/cheongsachorong/newest/choBoard/view.kto?instanceId=35&id=429268&edition=#>

### 박정희 9대 대통령 당선

동아일보 1978년 7월 6일 자

### 유신 헌법 공포식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i/view.do?treeId=07032&levelId=ti\\_032\\_0140](http://contents.history.go.kr/front/ti/view.do?treeId=07032&levelId=ti_032_0140) 우리역사넷

### 장발 단속

한겨레21 [제953호] 중 보도사진연감

YH무역사건 : <http://www.museum.seoul.kr/www/relic/RelicView.do?mcsjgbnc=PS01003026001&mcseqno1=039656&mcseqno2=00000&cdLanguage=KOR> “YH 사건 신민당사 농성 사진”

### 김영삼 의원 제명

경향신문 1979년 10월 4일 자

### 마산수출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 전태일 편지

<http://www.chuntaeil.org/?c=30/31&p=4&uid=387> 전태일재단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 경향신문 1970년 10월 7일 자

### 부마민주항쟁 시원석

[https://culture.changwon.go.kr/index.changwon?contentId=130&bbsId=BBSMSTR\\_00000000031&nttId=9417&menuNo=11110000&upperMenuId=11000000](https://culture.changwon.go.kr/index.changwon?contentId=130&bbsId=BBSMSTR_00000000031&nttId=9417&menuNo=11110000&upperMenuId=11000000) 창원관광

###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https://culture.changwon.go.kr/index.changwon?contentId=130&bbsId=BBSMSTR\\_00000000031&nttId=9416&menuNo=11110000&upperMenuId=11000000](https://culture.changwon.go.kr/index.changwon?contentId=130&bbsId=BBSMSTR_00000000031&nttId=9416&menuNo=11110000&upperMenuId=11000000) 창원관광

### 3·15의거 기념탑

[https://culture.changwon.go.kr/index.changwon?contentId=130&bbsId=BBSMSTR\\_00000000031&nttId=9409&menuNo=11110000&upperMenuId=11110000](https://culture.changwon.go.kr/index.changwon?contentId=130&bbsId=BBSMSTR_00000000031&nttId=9409&menuNo=11110000&upperMenuId=11110000) 창원관광



A bundle of dried lavender flowers is tied with a string and lies on a light-colored wooden surface. To its right is a single green apple. The background is a wooden table with a curved edge.

생각속으로

•

Real Talk! 부마이야기



---

# 부마민주항쟁 주역들과의 Real Talk!

---



## 일러두기

오늘날 청소년이 당시 항쟁 주역들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부마민주항쟁을 더욱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항쟁에 참여한 헌신과 노력에 공감할 수 있는 토크 장면이다.

대화의 시점을 현재에 맞추어, 당시 항쟁에 참여한 각자의 입장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의 청소년과 부마민주항쟁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김창원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김창원이라고 합니다. 카툰 ‘불 꺼’에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뵈게 되니까 너무 신기해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네. 반갑습니다.



최순애



조인권



조미자



현태민



남길용



박영수

이렇게 40년 전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우리가 더 고맙지요. 우리 학생들 덕분에 오랜만에 옛날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조인권



김창원

‘불 꺼’에서 보니 우리 지역에서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때를 ‘유신시대’라고 하는데, 1972년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토착화한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유신헌법 때문에 붙은 이름이지요. 실제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유지하려고 만들었다고 봐야지요. 시민들의 자유를 많이 억압하기도 했고요.



조인권



최순애

맞아요. 당시 분위기는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가 단속에 걸려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길렀다가 강제로 짧리기도 했죠.



김창원

늦게까지 다니다가 통금 시간에 걸려 경찰한테 잡혀가기도 했잖아.



조인권

정말이에요? 대학생이셨잖아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때는 대학생이고 뭐고 없었어요. 정치인들도 정부에 대항하다가 잘못하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던 시절이었어요.



조인권

학생들 감시한다고 학교에 사복 입은 경찰들을 보내기도 하고, 선생님들조차 감시를 받았지요.



최순애



김창원

우리 지역에서는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부마민주항쟁을 주도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항쟁을 시작하실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나를 비롯해서 경남대학교 학생들 몇몇이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때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분위기가 학교에 돌았죠.



조인권



최순애

그날 학교측은 부산대학교 학생들처럼 우리도 단체행동에 나설까봐 휴교령을 내려 수업을 취소하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고 도서관 앞에 다들 모여만 있는거예요.

내가 좀 욕하는 게 있는걸 아니까 친구들이 나를 부추기더라고요... 게다가 모여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두려움 보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여 있는 학생들 속에서 외쳤습니다. '대학 생활을 이렇게 보낼 거냐, 미팅이나 하고 술만 먹는 게 무슨 대학생이냐, 잘못된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



조인권



최순애

이 친구가 좀 단순해요.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용기있는 결심이었고, 지금도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조인권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김창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음... 3·15의거 이후로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워낙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함께 할지 우리도 몰랐지요.

하지만 교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학생들 생각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독재타도’, ‘유신 철폐’를 외치면서 시내로 나갔던 거죠.



최순애



김창원

학생들의 시위가 시내로 향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 시위를 주도할 때부터 ‘우리끼리 시위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민들이 동조해야만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계획했었어요.



조인권



조미자

맞아 맞아. 부마민주항쟁은 학생들만 한 건 아니지.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보다 일반시민들이 더 많았을걸.

당시 마산수출지역, 한일합섬, 창원공단 노동자들도 시위에 많이 참여했었어. 나도 그 중 한사람이고.



박영수



김창원

독재 정부에 저항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했다면 다른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는 그때 창원공단에 있는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1979년 즈음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해.



박영수



조미자

기름 값이 많이 올라 수출이 힘들다는 얘기도 있었고, 우리 서민들도 형편이 좀 안 좋았었지.

물가는 오르는데 내가 받는 월급은 그대로라서, 시골 계신 부모님 드리고 나면 생활하기가 빠듯했던 기억이 나. 독재정치에다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니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쌓일 수밖에...



박영수



조미자

그 즈음에 정부에서 우리 지역출신의 정치인이었던 김영삼씨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면서 부산·마산 지역 사람들이 엄청 분노했었지.

또 기억나는 게... YH무역이라는 회사에서 임금을 못받고 쫓겨난 여직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하다가 강제로 해산당하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일이 있었거든.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런 정부에 불신이 생긴거지.



박영수



김창원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이 있었네요. 그렇지만 ‘불 꺼’에서는 시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방망이 같은 것으로 맞고 하던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서게 되셨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사실 우리는 학생들이 먼저 나서줘서 고마웠지. 밤낮 없이 일만하면서 시간도 없었지만, 불만이 있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학생들이 용기내서 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나 뿐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퇴근길에 시위에 동참하게 된 거야.



박영수



김창원

그럼 노동자분들도 쌓인 불만이 그날 폭발한 거네요.



박영수

다들 같이 하자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신기하지? 심지어 시위한다고 길이 막히는 바람에 대중교통으로 퇴근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하다가 자연스럽게 시위에 합류하게 된 경우도 많았단다.



조미자

정부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던 거겠지. 뭔가 하나 터지지 않으면 이상할 분위기였으니. 3·15의거 탑 근처가 우리 집이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더라고.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막 때리는 거야. 우리 조카랑 비슷한 또래들이 이유 없이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나도 학생 한 명을 우리 집 연탄 창고에 숨겨줬던 기억이 나.



김창원

조금 망설여지는 질문이지만... 그 당시 경찰들은 왜 그렇게 폭력적이었나요?

경남대 학생들이 처음 교문을 나와서 시내로 진출하는 것을 경찰들이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제는 다음날이었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윗선에서 강경진압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현태민



남길용

당시 현장에서 취재를 할 때 우리도 목격했습니다. 강경진압이 시작되자 시위대도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당시 경찰들도 많이 당황했었다고 하더라고요. 3·15의거 이후 이 지역은 크고 작은 시위 자체가 없었던 지역이었거든요. 대규모 시위는 처음이라 경찰들도 우왕좌왕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 다음부터는 시위 가담자들뿐만 아니라, 단순 구경꾼 들까지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던 게 사실입니다. 시위자를 구분하기도 힘들었고, 시위대 쪽에서 돌멩이와 유리병들이 날라오고 하니깐 저희들도 약이 받쳐갔던 것 같아요.



현태민



남길용

우리도 그때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었는데, 카메라도 뺏기고, 취재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저희들도 뭐 당시 상황이 힘든 건 마찬가지였죠. 불타고 있는 파출소, 옆에서 다친 동료들을 보고 있으면 많이 겁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태민



남길용

지금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혼란한 상황에서도 시위대 내에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공격대상이 뚜렷했다는 것인데요. 세무서, 파출소, 공화당사와 같은 관공서 건물을 공격했지만, 일반 건물에 대한 약탈같은 건 없었다고 봐야지요.

일부 언론보도에는 ‘불순분자의 폭동’이라면서 시위대의 폭력성이 많이 강조된 것 같던데요?



김창원



남길용

물론 밤이 되면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 시위대들이 불이 켜진 상점이나 가정집을 향해 ‘불 꺼! 불 꺼!’ 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일부 흥분한 시위대들은 그 불빛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었죠. 당시 승용차는 부유한 사람들의 소유였기 때문에 시위대의 공격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당시의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김창원



남길용

취재하던 우리들도 이걸 불순분자들의 폭동이 아니라,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권을 향한 준엄한 외침이라고 쓰기도 했지만 통째로 삭제되었어요. 취재 중인 후배 기자는 시위대한테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관공서와 함께 우리 방송국과 신문사가 시위대의 공격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을 그대로 알리지 못한다고 생각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기자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저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창원

아... 이해가 됩니다. 모든 분들께서 힘든 시대를 사셨고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참석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죽으면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믿었는데, 이후 군부정권에 의해 똑같은 독재 권력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조인권



최순애

그건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화가 나는 일이지요. 몇 달 지나지 않아 광주에서는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역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줬음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얻은 것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이 역사에서 평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조인권



최순애

시간을 내어 책을 봐도 좋고 아님, 인터넷을 보고 좀 더 부마민주항쟁을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꾼 위대한 힘이 된 사건이니까요.



조미자

그래도 우리지역은 3·15의거로 이승만 독재를 몰아내고, 부마민주항쟁으로 유신체제를 끝냈으니 조금은 자부심을 가져도 돼.

네, 하지만 당시 일로 아직도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줬음 좋겠어.



박영수



남길용

앞으로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 속에서 제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믿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아저씨처럼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현태민



김창원

아직 실감이 안나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긴 하지만, 사실 처음 부마민주항쟁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는 너무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시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학교에서 이승만 정권을 몰아낸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유신체제의 막을 내리게 만든 부마민주항쟁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워요.



최순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공감 해주는 것만 해도 뿌듯해요. 오히려 부마민주항쟁 이후에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가 더 부끄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우리도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갈테니, 학생들도 우리가 외쳤던 뜨거운 함성을 기억해주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민주 시민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조인권



김창원

오늘 인터뷰는 잘 정리해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 함께 다시 뵙고 싶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생활속으로

·

창동을 못 가는 할머니



# 창동을 못 가는 할머니

2차고사가 끝난 주말, 나는 엄마와 함께 할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창동으로 갔다. 엄마는 운전을 하고 계셨고, 라디오에서는 ‘신촌을 못가’ 노래가 흘러 나왔다. 나는 무심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고 있는데, 엄마는 내 노래를 듣다가 씩씩한 미소를 지으시며, 니 할머니한테는 이 노래가 ‘창동을 못가’로 들릴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보면 할머니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창동에 나오시는 일이 없었던 것 같다. 할머니가 왜 창동을 못 오시냐고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모른척하시며 대답을 피하시다가 내가 자꾸 재촉하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말씀해주셨다.

“엄마가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는 창동 근처에만 가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겁이 나서 못 걸으신다고 하셨어. 오늘도 할머니를 모시고 선물을 사러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창동에는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셔서 우리끼리 온 거야. 나중에 할머니 댁에 가면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연우도 다 컸으니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실 거야.”



2부 - 부미민주항쟁 이야기

엄마와 나는 생신 선물을 사서 할머니 댁으로 갔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 생신 축하 파티를 하고 선물을 드렸다. 할머니께서는 예쁜 손녀가 사온 선물이라며 더욱 기뻐하셨다. 나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창동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여쭙었다.



할머니께서는 옛날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창동에서 크게 다쳤던 일이 있어서 그 후로 창동에 가기 힘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께 옛날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16살쯤 되었을거야. 시골에서 마산으로 올라와 ‘한일합섬’이라는 방직공장에 다니게 되었어. 직장을 구한 것이 정말 다행스러웠지만, 어린 나에게 공장은 힘든 곳이기도 했단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데 보람이 되었지. 내 처지가 안쓰러웠던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들이 많이 보살펴줘서 그렇게 외롭지는 않은 생활이었어.



특히 ‘순애’라는 언니가 나를 많이 아껴줬었지. 그 언니는 대학생이었는데, 우리 같은 여공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잠깐 공장에 다닌다고 말했어. 순애 언니는 동료 언니들이나 나한테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재단사나 감독관들에게는 자주 불만을 얘기하고 우리의 불편함을 대신해서 항의 해주기도 했어. 착하기만 한 언니가 재단사와 감독관들과 다룰 때는 조금 낮설기도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마 10월쯤이었을 거야. 순애 언니가 공장에 나오지 않았어. 무슨 일일까 궁금했는데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자 밖이 시끄러워져서 더구나. 공장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마산에서 무슨 시위가 일어났다고... 공장에 있었던 우리는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감독관이 오늘 업무량을 끝내야 한다며 하도 재촉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



퇴근 시간이 되자 같이 일하던 언니들과 나는 밖에 일도 궁금하고 순애 언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나는 무서웠지만 언니들을 따라 시내로 나가 보았다.



시내에 이르니까 매캐한 연기가 가득하고 최루탄을 쏘는 소리가 평하고 나서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았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 창동 네거리쯤 왔더니 경찰들과 사람들이 대치를 하고 있었어. 사람들은 독재타도! 유신철폐! 박정희는 물러가라! 이런 구호들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

그 때 사람들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순애 언니가 보이는거야.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언니한테 어떤 비장함이 보이기도 하더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몰려와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걸까? 순애 언니는 왜 여기 있는걸까?

나는 순애 언니에게 다가가서 경찰들이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가는 걸 봤다며 돌아가자고 했지. 하지만 순애 언니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거야. 그리고 지금이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면서...



세상을 바꾼다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순간 나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 순간 경찰들이 순애언니의 어깨를 곤봉으로 내리쳐 쓰러뜨리더니 머리  
채를 잡고 끌고 가기 시작했어. 순애 언니한테서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경찰  
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니를 끌고 갔단다.

나는 순애 언니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무서워서 꼼짝할 수 없  
었어. 다른 언니들이 내 손을 잡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겨우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날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 순애 언니가 잡혀가던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그리고 순애 언니가 했던 말들이 머리 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통령은 한 명이었고, 바뀐 적이 없었는데... 어른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잘못되었고, 물러나야 한다고?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내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와 뉴스 보도는 너무도 다른 내용인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나는 순애 언니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순애 언니가 몰래 숨겨둔 책들을 찾았단다. 밤새 그 책들을 읽고 또 읽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순애 언니가 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단다. 또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했는지도 알게 되었고.



나는 창동에서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가슴 속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 그동안 나는 내가 사는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았구나. 그저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우리의 소중한 권리들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구나. 그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순애 언니같은 사람들이 힘들게 싸웠구나.

머릿속은 환해지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지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순애 언니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큰 빛을 쬐 거야. 자유는 공기와 같아서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느끼기 어려워. 하지만 자유를 억압당하기 시작하면 공기가 부족할 때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른단다. 그들이 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란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로 얻은 소중한 권리란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아직도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힘드신지 중간중간 울먹이기도 하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어느 납골당에 찾아 가셨다. 그곳에는 우리 엄마 나이 정도의 사진과 유골함이 있었다. 그 유골함에는 ‘최순애’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익숙하신 듯 순애 언니의 사진을 보며 인사를 건네고 며칠 사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정하게 전해 주셨다. 그리고 내 손을 잡더니 순애 언니에게 인사를 시켰다. 할머니는 물기 어린 눈으로 나와 순애 언니의 사진을 번갈아 보시더니 나도 이제 많이 컸으니 숨겨왔던 사실을 밝혀도 될 것 같다고 하셨다.



순애 언니는 그 날 창동거리에서 경찰서에 잡혀 가신 후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후유증으로 내내 우울증을 앓았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인물로 낙인이 찍혀 취직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순애 언니를 정성스럽게 돌봐 주었지만 순애 언니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고 했다. 순애 언니의 부모님께서서는 결혼을 하면 나아질까 싶어 혼인을 시켰지만 아이를 낳고도 계속해서 후유증에 시달리며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연우야.

이 할머니는 결국 순애 언니 아이를 데려다 자식처럼 키우게 되었다.

그 아이는 자라서 또 이쁜 딸을 낳았지.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왠지 엄마와 나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 맞아.

그 아이가 연우 엄마란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저린 이야기였지만, 놀랍게도 나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자랑스러운 친할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할머니처럼 멋지게 살라고 당부하셨다.

나는 40년 전 할머니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때처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와 나를 지금껏 보살펴주신 우리 할머니와 나의 진짜 할머니께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다짐했다.

할머니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에 나도 보탬이 되겠다고... 그런 세상을 꼭 보여드릴거라고...





자

자

인



실천속으로

•

## 교복 입은 민주 시민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배웁니다.

# 3학년 4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다

선거권이 없으면 시민이 될 수 없다고요?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

민주 시민이지요.

우리는 스스로를 ‘교복 입은 시민’으로 불러요.



3학년 4반 학생들은 최근 어른들만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정책 제안서>라는 것을 만들고 서명도 받아보고 공청회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타협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 자신들도 사회시간에 배웠던 민주 시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를 민주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3학년 4반 학생들을 만났다.

## 문제는 생활 속에서

교복변경 제안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여름에 교복을 입고 학교 생활하기가 너무 덥고 불편하더라고요. 교내에서 교복을 착용해야한다는 규정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학급회의에서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한 친구가 생활하기 편한 형태의 교복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었어요.





처음부터 교복을  
변경하자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고요?

처음에는 교복변경이라는 거창한 제안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학교에서 생활할 때는 교복 대신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작은 건의를 한 것인데 일이 커졌어요.  
(웃음)



학교 측과 마찰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학교 측과 마찰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 반 전체가 꼭 문제 학생들이 된 것 같네요(웃음). 학교 생활 중 체육복 착용을 허용하자는 규정 변경을 학생회를 통해 건의했는데 “학생 답지 않다.”, “학교에서 정한 규정인데 따라야 한다.”라는 일방적인 답변만 돌아오더라고요.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권위적인 학교의 방식에 대해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 하려는 저희 반의 노력이 마찰로 보였나 봐요.



학교 측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학교의 입장과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학생의 권리 둘 다를 만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생활복 형태의 교복이 필요함을 선생님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학생들의 협력된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당성 있는 주장을 펼치는 저희들의 노력을 선생님들이 높게 봐 주신건지 선생님들도 논의해보겠다는 열린 결론을 주셨어요. 며칠 뒤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교복 변경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보자는 의견이 와서, 저희 제안이 반영되었구나 싶었죠.



## 우리는 교복 입을 민주 시민

공청회  
결과는요?

내년에 저희 학교 교복이 생활복 형태로 변경되는 것 아시  
잖아요.(웃음)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불편함  
을 공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저희들에게 칭찬도 많이 해 주셨어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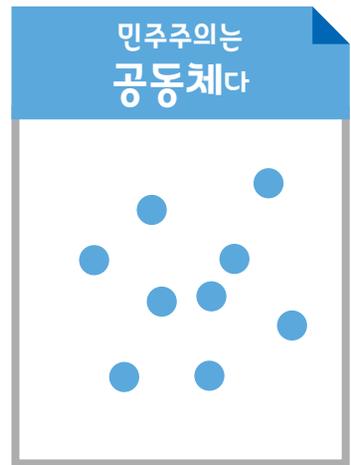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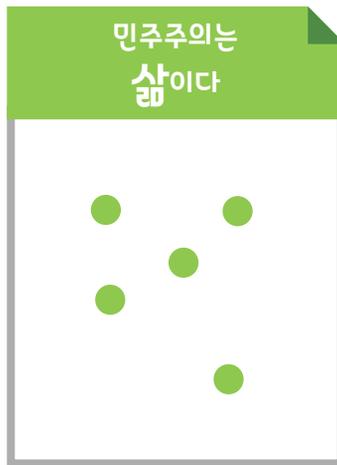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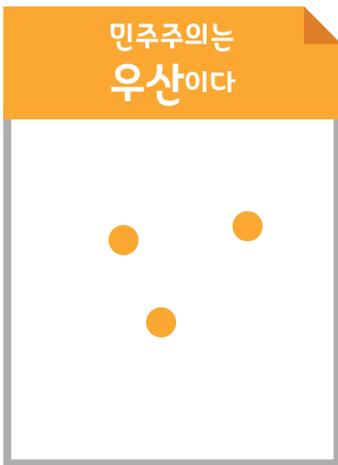
당연히 교복 변경이라는 정책이 제안되고 결정되게 결정적  
힘을 실어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죠.  
그런데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또 한 분이 있어요. 이 일이  
있기 한 달 전 쯤 사회시간에 부마민주항쟁을 경험했던 할  
머니의 증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때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잘못된 것에 맞서서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자신의 자유와 권리는 지켜지지 않아요.”*

민주주의를  
정의한다면?

음... 자신의 생활 속에서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대화하고 설득하여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너무 거창한가요.(웃음)

## “ 민주주의는 ○○이다 ”



느끼고  
배운 점이  
많다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선거권을 가진 어른들이나 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 권력에 맞서는 것처럼 범위가 넓은 저항만이 민주주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다보니 민주주의는 중학생인 우리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 민주주의는 모든 생활에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었어요.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어요.



끝으로 요즘 반에서  
서로를 부르는  
별명이 있다고요.

요즘 저희 반 아이들의 별명이 모두 ‘교복 입은 시민’이에요. 서로에게 “반갑습니다. 교복 입은 시민1님”, “저도 반가워요. 교복 입은 시민2님”이라고 인사를 하곤 합니다. 장난스럽게 하는 인사이지만 친구들의 얼굴에는 뭔가 뿌듯함이 담겨있어요. 친구들의 별명과 미소를 보면서 저희가 민주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3부

**Action!**

**부마민주항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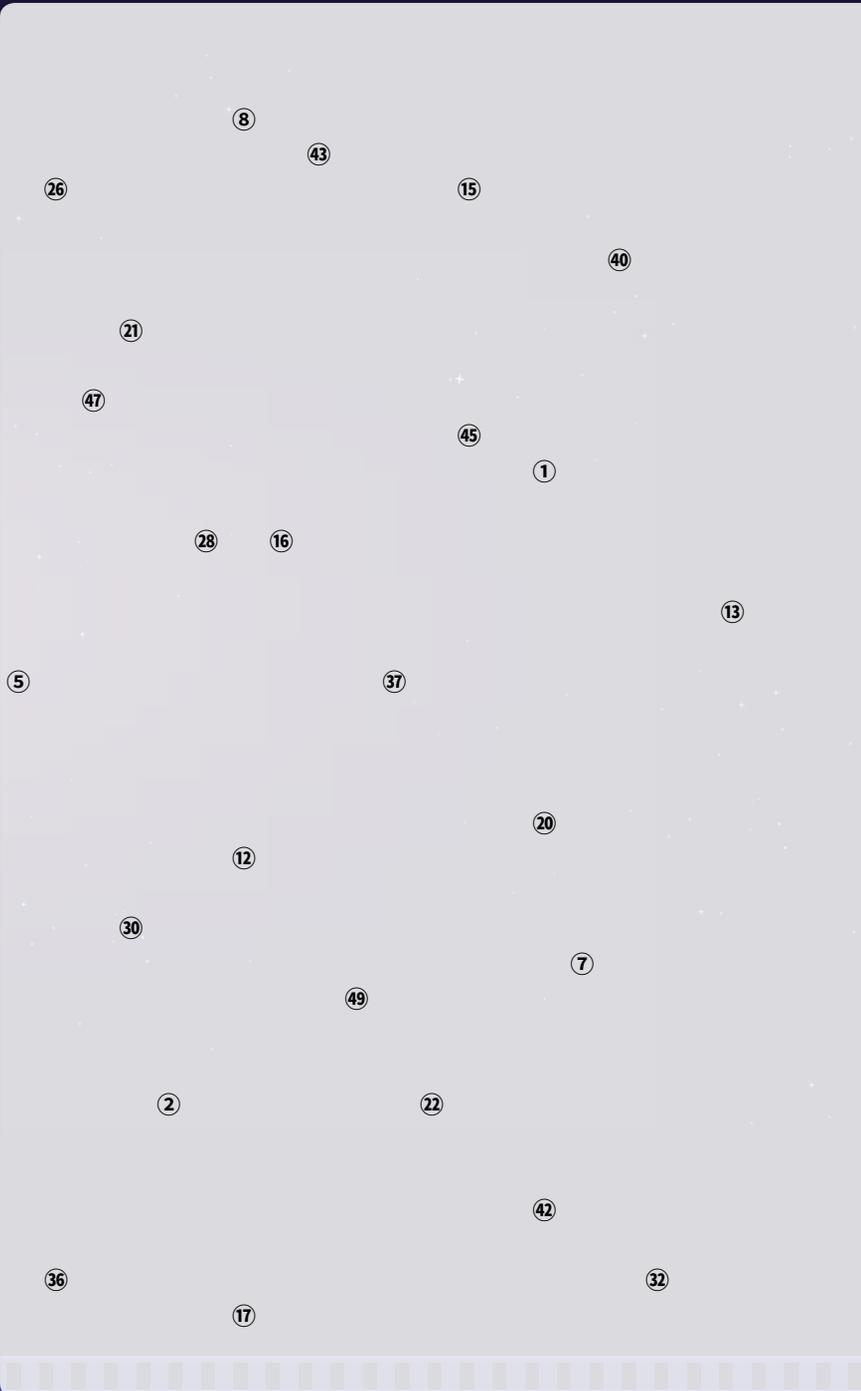


Action  
01

# 부마민주항쟁

100~119쪽에 제시된 '창동을 못 가는 할머니'의 일부내용입니다.

- 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통령은 한 명이었고, 바뀐 적이 없었는데...
- ② 또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했는지도 알게 되었고.
- ③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란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로 얻은 소중한 권리란다.
- ④ 머릿속은 환해지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지는 순간이었단다.
- ⑤ 대통령이 잘못되었고, 물러나야 한다고?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 ⑥ 그저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우리의 소중한 권리들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구나.
- ⑦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순애 언니가 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단다.
- ⑧ 그 날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 순애 언니가 잡혀가던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 ⑨ 그들이 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
- ⑩ 할머니는 순애 언니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큰 빛을 진거야.





Action  
03

# 부마민주항쟁

# 키워드 찾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굳센 의지가 담긴 주먹에는, 11개의 부마민주항쟁 키워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위-아래, 가로-세로, 대각선을 연결하여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도전~!

(정답: 149쪽)

# challenge

## 부마민주항쟁



챌린지  
01

"창원시민 여러분, 오늘이 부마민주항쟁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지역 라디오 방송에 부마민주항쟁을 알리는 사연을 보내봅시다. 이 책을 보는 친구들뿐 아니라 라디오를 듣는 모든 사람이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지 않을까요?



### 라디오 사연 보내실 곳

예시  
01

-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KNN(<http://www.knn.co.kr>) 입력
- 해당 사이트 접속 후 라디오(파워FM)의 자신이 사연을 보내고 싶은 프로그램 클릭
- 게시판에 사연 남기기

예시  
02

-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MBC경남(<http://mbcgn.kr>) 입력
- 해당 사이트 접속 후 프로그램 (radio)배너 클릭
- 자신이 사연을 보내고 싶은 시간대의 프로그램 클릭
- 게시판에 사연 남기기





## 릴레이 1018



친구들과 부마민주항쟁 알리기 캠페인 활동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학생들이 협동하여 1018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이것이 경남의 여러 초, 중, 고등학교에 릴레이처럼 이어져 그 가치가 전달된다면, 여러분 모두 부마민주항쟁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마민주항쟁 관련 명소에서 찰칵!



이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본 학생은 부마민주항쟁이 내가 살아가는 그 장소,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었음을 실감할 것입니다. 친구들과 부마민주항쟁이 전개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로 생각을 나누고, 사진을 찍어봅시다. 추억 사진처럼 부마민주항쟁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수록된 **활동지 중 한 가지 이상**

+

**챌린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완성하고,

이를 찍어 아래 주소 또는 홈페이지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41 4층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 홈페이지 <http://buma1979.or.kr>

# 부마민주항쟁 별자리 그리기 정답

## '불 꺼'의 의미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대의 외침.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일차적 목적과,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한 계층에 대한 저항이 담긴 구호.

자세한 내용은 16~67쪽 카툰 참고



# 부마민주항쟁

# 키워드 찾기 정답



## 만든 사람들

---

<b>총괄</b>	창원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b>강주</b>
<b>기획</b>	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윤남
<b>집필위원장</b>	밀양고등학교 교장	손경순
<b>집필팀장</b>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교사	최신호
<b>집필위원</b>	진영고등학교 교사	이혜란
	마산여자고등학교 교사	문성민
	명서중학교 교사	정희란
	김해삼방고등학교 교사	강영득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교육담당	김동석
<b>삽화</b>	(주)인스토리 대표	황라겸
<b>검토위원</b>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교사	강은주
	창원여자중학교 교사	민상욱

<b>발행일</b>	2019년 10월
<b>발행인</b>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환
<b>발행처</b>	창원교육지원청
<b>펴낸곳</b>	새롬씨엔피



###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저항하며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지역 마산에서는 10월 18일 항쟁이 일어났다.

본 교재는 부마민주항쟁 중 마산지역 항쟁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